

새로운 역사 창조



글 ' 박 영 운 사외이사

우리는 지나간 날들의 아쉬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추억과 함께 내일을 위한 오늘
의 삶을 사랑하고 꿈을 키우고 실천하며 이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나갈 때입니다. 찬란한 태양아래 무한히 전개될 푸르고 푸른 우리의 동산을
그려봅니다.

연초 새해 벽두부터 신문이 보기 싫을 정도의 각종 보도를 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진실이 아니길 빌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가슴 떨면서 혼돈된 사회에서도 확실한
자아 인식과 성장로 내일을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해의 국내외적 어지러운 정세에 현기증을 느끼는 나만의 상념인가?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의 공포, 질병과 기아에 대한 불확실한 대책 등 갖
가지 비인간적인 소식에 가슴 저림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지난 날의 반성과 회한, 아쉬움이 교차하는 불규칙 바운드의 감정 경험, 사랑의 순간, 행복
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무디어져 추억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을까?

실연, 실직, 소중한 사람을 아주 먼 곳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좌절의
눈, 이 모든 것들을 세월이라는 저편 속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숙명처럼
받아 들여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살아갈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추억은 늘어 갑니다. 그 추억
이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후회가 늘어간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불행의 터널 속에서 뿌리
깊은 결핍의 시간에 익숙한 채 희망의 부피가 줄어들지 않을까? 혹 가정에 원치 않는 특이
생기거나 않을까? 원하던 원하지 않던 지나간 시간들은 기억 속으로 역사를 재편하고 있습
니다.

누구에게나 좋았던 호시절의 기억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어두울 때 마음을 밝히는 작
은 촛불이 되지 않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의 풍경도 바람의 속도감이 느껴지는 한 폭
의 그림과 같습니다. 계절이 엄동설한이라는 형용사와 같은 편이 되어도 우리는 따뜻한 추억
으로 내일을 맞을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의 과거 일뿐!

우리에게 겨울바람이 너무 차다면 오늘의 생활이 고달파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
는 까닭입니다. 멀지 않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선배 또는 임직원 여러분의 끊임
없는 연구 노력으로 오늘의 쌍용건설이 존재한다면 그 속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몇 년이 있
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IMF 라는 굴레, 그 긴 터널을 우리는 이제 벗어나고 있습
니다. 그 모진 시련과 아픔은 추억이라는 역사 저편으로 맡김히 보내고, 지금 새로운 세계의 진
입 역사를 쓰고 있고, 무한한 새 역사 창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지혜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 고도의 개인적 전문성을 가진 실력을 갖추고
-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다양한 방법의 트인 대화를 통하여
- 도전적이고 명확한 공통의 비전과 목표로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도전하여 힘을 모으면

이제는 더 어제와 같은 아픈 추억의 역사는 없을 것이며 21세기를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으
로 우뚝 서게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들의 아쉬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추억과 함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삶을
사랑하고 꿈을 키우고 실천하며 이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나갈 때입니
다. 찬란한 태양아래 무한히 전개될 푸르고 푸른 우리의 동산을 그려봅니다.